발언대

선학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의견

(재)선학원이 4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이 제정한 법인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종지종통 봉대'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의 조항을 삭제했다.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감정적 대응할 문제 아니다

법안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착잡한 기분이다. 이번 법인법 제정은 종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의 제한됐던 권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종단이 제정한 법인법에 의해서 협의 관계가 형성된다 해도 선학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종단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무작정 문을 닫고 안 만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또한 선학원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현안 협의를 하겠다는 종단에게 '종지종통 봉대' 조항을 삭제하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옳지 않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뿌리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 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승가의 문제를 이해관계로 풀어서는 안된다. 종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선학원, 대화 나서달라

정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학원 이사회의 파장은 클 것이다. '종지종통 봉대' 조항 삭제라는 스스로 역사성을 져버리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정 진제 스님께서 "종단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사회법에 의한 쟁송 등 파승가적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중을 내렸음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쟁송을 천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종단에서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선학원도 구체적인 문제 사항을 수면위로 올려 협의해야 한다. 협의하고 논의하다보면 결국 접점은 찾아지기 마련이다.

선학원은 왜색불교에 저항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선원 수좌에 대한재정적 지원과 선풍진작을 위해서 설립됐다. 설립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계종 종도로서 대화에 나서주길 선학원에 바란다.

종단·법인 간 배려 필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흔히들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고 한다. 선학원은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산실로 조계종이 탄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선학원은 다른 여타 법인과 달리 특수한 역사성과 독자성이 있다. 그런 점은 종단에서 배려해 줘야 할 부분이다. 일반 법인과 똑같이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선학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선학원도 형·동생을 따지기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1960~70년대 선학원의 사찰은 20~30개에 불과했다. 당시에 선학원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조계종 사찰에서 공부하고 수행정진했다. 창립 선사부터 조계종의 계맥들이었다. 현재 있는 선학원 스님들도 조계종 소속 승려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만을 위해 살지 말고,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상호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다.

불자 세상보기

올바른 역사교육 절실하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욱일승천기 간판 걸고
대학 홍보지 제작
때우기식 역사교육 원인
국사교육 확대해야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걱정스럽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 된 걱정거리라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사례를 접할 때마다 새록새록 충격을 받으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상황의 의미가 워낙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도 몇 가지 사례가 지상파 텔레비전의 뉴스시간에 보도되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일본식 선술집의 간판으로 내걸렸는데, 가게 주인은 그 문양의 의미를 몰랐더란다.

대학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욱일승천기의 문양을 배경으로 넣어 홍보지를 제작하고 배포한 일도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그 문양을 보여주니 예쁘고 보기 좋다고 반응한다. 심지어는 그 문양의 의미를 알려주었는데도, 디자인이 보기 좋으면 그만이지 그게 전범(戰犯)의 깃발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답하는 중고생도 있었다.

중학생이 "삼일절"을 "삼점일절"이라고 읽는 장면과 이완용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일제와 맞서 싸워 몰아낸 분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의 답변에 이르러서는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런가 하면 안중근의사가 도시락폭탄을 터뜨렸고 그 와중에 손가락 하나가 잘려서 짧아졌다는, 헷갈림과 상상력이 결합된 스토리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런 시시콜콜한 사항에 대한 무지, 그 자체는 실상 별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 알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며,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지를 두고 청소년 그 자신들을 비난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다. 중등교육과정에서 국사과목의 위상과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일 뿐이다. 충분히 배울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힘주어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무지하다고 청소년들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중고등학교의 교과 편성과 운영에서 국사과목에 대한 교육이 너무 소홀하고 빈약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정되는 수업시간의 총량도 보잘 것 없고, 이른바 집중이수제에 따라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어느 학년 한 두 학기에 집중적으로 국사 수업시간을 '때우고' 나면 그만이다.

수능시험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들은 대개 모두가 그처럼 시간을 때우면 그만인 처지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사과목도 그 반열에 들어가 버렸다는 데 있다. 어느 과목이라고 배울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을까마는, 중요성의 비중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가르고 수업시수도 차등을 두어 배정해야 하니까 모든 과목을 똑같이 취급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침인지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교육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사회화이고, 사회화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개인이 국가라는 조직에 사회화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수불가결하고 바람직하며 절대적인 선이어서가 아니다. 옛날 비틀즈의 존 레논이 이매진(Imagine)이라는 곡에서 노래했듯이 "국가라는 게 없고, 따라서 누구도 국가를 위해 죽이거나 죽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현실에서는 누구든 불가피하게 특정 국가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의 실존과 국가라는 사회단위가 분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기가 속한 국가사회의 명운이 개인의 명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운명체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여 그 명운을 올바르게 개척하고 이끌어갈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국영수 공부보다, 아니면 백보양보해서 국영수만큼, 필수적인 교육항목이 아닌가 싶다.

社說

'조계종·선학원' 출가정신 잊지 말자

4월 1일 공포된 법인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재)선학원이 정관에 있었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강수를 뒀다.

또한 선학원은 간월암, 정혜사 등 수덕사와의 문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이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으며 법인법을 전제로 하는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와의 회동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선학원의 이 같은 결정은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종단의 사찰법에 의해 선학원 분원들은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분원장 스님들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선학원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조계종 사찰의 강원이나 중앙승가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1921년 석왕사 안국동 포교당 보살계단에서 만공 스님이 주창한 "조선사람끼리 운영하는 선방을 세우자"는 기치 아래 설립된 선학원은 근대불교의 산실로서 조계종의 모체이기도 하다. 결국 조계종과 선학원은 둘이 아닌 한 뿌리라는 의미다.

원래 하나였던 종단과 법인이 세속적인 틀 안에서 갈등을 벌이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일불제자로서 같은 선맥을 이은 후학으로서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

종단은 선학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경청해야 하며, 선학원은 종도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은 곪아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소통이다.

자재병원 10년 불사의 의미

인간에게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제다. 그 과정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한 가치가 상실되기 쉽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계에 첫 완화의료(호스피스) 전문병원이 문을 열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능행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건립 중인 자재병원이다.

능행 스님은 4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병원, 가난해도 치료 받을 수 있 병원을 만들고 싶었다고 병원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의 이번 불사에 대한 원력은 10년이 넘었다. 불교계 호스피스 시설이 없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불자들이 타종교 전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개종 하는 현실을 목격하고부터 시작한 것이다.

자재병원이 건립되면 암을 비롯한 불치병 환자들이 재활과 치료 그리고 증상조절과 통증완화를 위한 완화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승가병동'을 통해 수행 중 질병에 걸린 스님들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치료, 회복, 재활, 요양 등도 제공된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9천여 평 부지에 건축비 100억 원으로 건축면적 927.14㎡, 연면적 2,883.20㎡, 지하 1층, 지상 3층의 108병상 규모로 설계돼 건축 중이다.

정식 개원은 9월 29일이지만 4월 말부터는 환자들의 입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병원에는 자원봉사자실, 열반당, 법당과 요가명상실도 마련된다.

자재병원이 완성되면 서민층 환자와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의 인식 제고와 질병 치료로 인해 겪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 몫을 할 것 같다. 아울러 복지 환경이 열악한 스님들에게도 큰 위안과 자비나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